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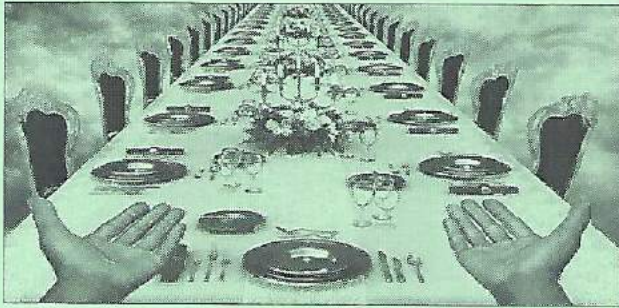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8 주일

제37권 47호(가해) 2017년 10월 15일

[오늘의 묵상]



성경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잔치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이 함께 초대받아 어우러질 기쁨의 잔치이고, 구약에서부터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고대하시고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나라에 먼저 초대받았으나, 그것이 그 자리에 대한 보증 수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내신 새로운 백성, 곧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음으로써 세계의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점점 발전되어 가는 세상 안에서 교회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정의와 자유와 해방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아 큰 역할을 수행할 하느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복장 준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여들 많은 백성들을 안내할 책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지만, 하느님의 이 의지는 인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치 하늘에서 번쩍 비추는 번갯불처럼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매일 미사 10월호-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5주일) 1제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전) ●꾸리아 ●빈첸시오회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원)이용식 베드로, 유승례 아가타 & 정기화, 신임순 안나
	(생)박지영 레지나 & 김운중 스테파노
학생 미사	(원)
	(생) 이윤희 바오로
주일 낮 미사	(원)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 김정례수산나, 박주현 마리아, 엄정자 분다, 연옥 영혼, 김문성 & 홍봉순 & 김현정, 박세실리아, 정상문 스테파노, 안지조 & 차소저 & 윤정숙 마리아 미카엘라
	(생)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 김은학 모니카, 박흥룡 요셉, 조혜진 리디아 & 조혜운 테레사, 손석 스테파노, 손왕업 윌리엄, 성소후원회원들, 허리케인 수해를 입은 모든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5,6-10

화답송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4,12-14.19-2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태오(Matthew)22,1-14<또는 22,1-10>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세계적 불평등

산업화된 북반구의 시장을 충족시키려고 천연자원을 수출한 결과로 금광지역의 수은오염과 동광지역의 아황산오염과 같이 지역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배출된 가스들을 처리하려고 전세계의 환경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쌓여온 가스분진을 처리하려고 전세계의 자연공간의 사용을 계산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일부 부유한 국가들의 엄청난 소비로 야기 된 온난화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온 상승이 가뭄과 맞물려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상태의 독성물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자본을 대는 나라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개발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데 따른 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흔히 다국적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선진국, 이른바 ‘제일세계’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이곳에서 저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업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나면 실업, 활기 없는 마을, 천연자원의 고갈, 삼림파괴, 지역농업과 축산업의 몰락, 노천광의 웅덩이, 훼손된 언덕, 오염된 강, 유지가 불가능한 사회시설과 같은 인간과 환경에 부담이 되는 짐만 남게 됩니다.”³⁰⁾

52.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는 통제수단이 되어버렸지만, 생태적 빚은 경우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생물권 보존지역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부유한 국가들의 발전에 계속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의 토지는 기름지며 대부분 오염되어 있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사악한 상업관계와 소유권 때문에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위한 재화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차단되고 있습니다.<계속>

30. 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코파우에 주교단, 성탄 담화, 2009.12., 2항.

오늘의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2	202	182
봉헌	261	261	272
성체	280	280	305
파견	321	321	246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왜 하필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씩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집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느님이 분명 ‘어디 오늘의 운세를 시험해볼까?’ 하며 무작위로 추첨한 끝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많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느님이 왜, 어떤 의도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셨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만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난 민족이라 당신 백성으로 뽑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어 ... 너희를 구해 내셨다.” (신명 7,7-8)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된 뒤, 선민의식에 빠져 겸손함을 잊고 자신들이 특별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되었으며, 그렇게 제 잘난 맛에 취해 자신의 안위와 번영만 도모하다가 정작 참 하느님은 잊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으면서도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구원의 잔치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당신을 거부하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태 21,31)고 선언하셨듯이, 이제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거부한 구원의 잔치에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곧 모든

민족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선한 이들 악한 이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느님 구원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된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런 무차별적인 초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는, 우리 또한 무슨 자격이 있어 하느님께 불리움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야말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고 명하였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하고 그에 안주하기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임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봉헌하는 기도와 자선,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초대받은 구원의 잔치에 합당한 참된 예복이 될 것입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래서 눈물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눈물에 약해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눈물을 보이면 어쩔 줄 모르며 뒤흔 눈감아 주는데,
이런 성격을 알고 거짓 눈물로 악용하는 이도 있어
주의를 주었더니
알고 있노라고,
그렇지만 어찌겠느냐고,
본래 눈물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피할 곳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고.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이민장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금자 데레사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 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 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전교주일 2차헌금 : 10월15일(14일 토요일미사 포함)
오늘(10월14/15 주일)은 '전교 주일'로 전세계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적극적인 봉헌을 바랍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Lock-in

- 일시 : 10월20일 오후 6시30분~ 10월21일 오전10시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대상 :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들

◆주일 미사 후 영화상영

주일 낮 미사 후 전신자를 위한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많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5일 오후1시
- 장소 : 성전
- 제목 : 오두막(The Shack, 2017)

◆ 10월 요셉회모임 특별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일시 : 오늘주일 (15일) 11시 미사후, 강당
- 연락처: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독서직 수여 미사

김지훈 대전안드레아 학사의 독서직 수여미사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21일(토요일) 10시 미사
- 장소 : St. John's Seminary

◆ 허리케인 어마(Irma) 기도봉헌

허리케인 수해를 입은 모든 가정을 위해 백삼위 성당
울프레아에서 기도봉헌을 받습니다.

성당입구에서 22일(다음주일)까지 봉헌내용을 접수
받습니다. 많은 신자 분 들의 참여바랍니다.

- 대상 : 백삼위 성당 모든신자
- 연락처: 서용숙 에스텔 ☎ (310) 713-4744

◆ 글로리아 성가대 악기협조단원 및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는 기도이며 찬양이며 또한 주님을 향한 열렬한 봉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교회와
모든 이웃"을 위해 발휘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 역시 주님이 보
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 악기 협조 단원 :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 연주자 각 1명
(대축일 및 특송을 준비합니다.)
- 성가 단원 : 성가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모든 분.
- 문 의 :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 15일: * 카레 덮밥(\$3, 토동1반)
* 주일학교: 샌드위치 (11 학년)
- 10월 22일: * 짜장밥(\$3, 토서 3반)
* 주일학교: 칠리덕 (10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금영도 김 옥 김기정 김봉녀 김상규 김상근 김영수 김원규 김원호 김윤진 김일선 김정아 김찬구 나경흠 노혜숙 민경근 박운모 배태임 송기철 송재훈 양영자 오신재 유근우 유영균 유중수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은영 이재용 이종필 임의웅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정판영 조소영 조희남 주대중 최수복 한혁수 홍영식 황지영 황철수 한길선례	성전헌금	장미순 금영도 김기정 김윤진 김찬구 나경흠 노혜숙 민경근 양영자 유근우 유중수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장영우 정규숙 정판영 주대중 한혁수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5,045		합계 : \$1,115
주일미사헌금 :\$2,480		주일학교입금 \$120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0월 21일(토)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 (310)741-0556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11일(토)
연도 : 오후 1시15분, 미사:오후 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Chapel
5835 West Slauson Ave. Culver City, CA 90230
- 주최: 남가주 천주교 사제협의회
- 주관: 천주교 성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남가주 '주사위' 찬양가족 모집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생활성가로 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약자로 남가주 내 생활 음악단체입니다.

- 모집부문 : 남녀보컬 및 키보드 각 1명씩
- 자격 : 음악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전할 수 있는 분
- 일정 : 매년 정기공연및 음악피정
- 지도 :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신청 : 허 사도요한 jusawi1122@gmail.com
☎(213)923-0898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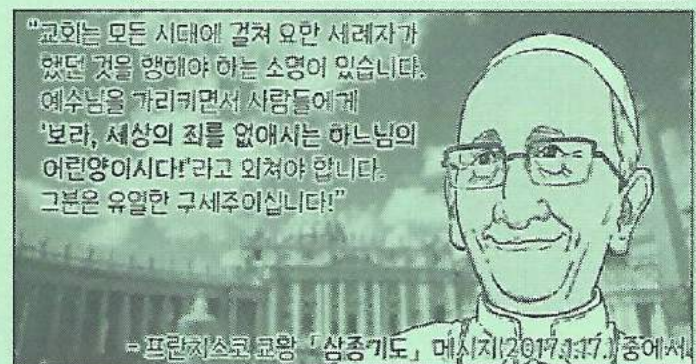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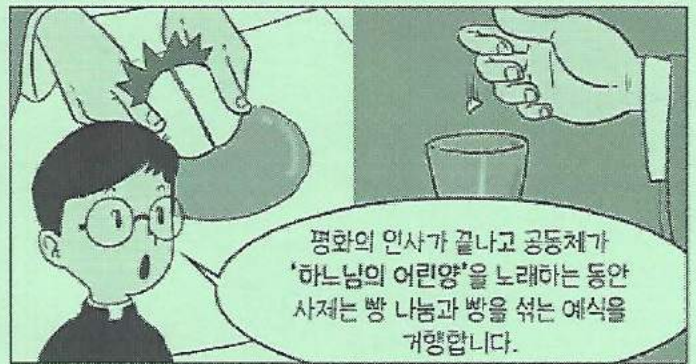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준자 박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데히틸다 713-4926	강순복 요셉피나 10/18(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페트리치오 10/14(토)오후6시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0/17(화)오후8시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01(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심재은 클레멘스 10/14(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4(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최옥희 데레사 10/20(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운옥 마리아 10/10(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0/08(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최미열 클라라 938-8089	권오상 마오로 10/09(월)오후7시
	2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4(토) 오후6시 성당
	2		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유현화 리디아 10/13(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민수 베드로 10/14(토)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박준범 요한 10/13(금) 오후7시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한애경 올리아나 10/11(수)오 전 10시 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요셉회	미사 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 회의	1시
-------	----



성모송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루카복음 1장의 말씀에 기대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28절)에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벳이 건넨 인사(42절)에서 각각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엘리사벳의 인사로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셨고 왜 행복하게 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누구라도 행복해지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 은총에 열려 있었다는 것과 그 은총을 갈망하고 하느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으로 당황했던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삼종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38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으로 소녀 마리아는 성모님이 되셨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이 주님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성모님은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모님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일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성모님의 삶은 고달픈 인생 항로를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교회 공동체가 첨부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교회는 구세주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사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하고 간청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을 대비하여 성모님께 의탁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모송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사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죽음을 맞는 영혼을 흔든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대비해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 의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이 가득하신 ()님, 기뻐하소서. ()께서 함께 계시니 ()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 또한 복되시나이다

10월8일 자 정답:

인간 기본권, 선의의 발전, 평화, 안전

「성경 속 동식물」 39 해방과 강함의 상징인 독수리

성경에서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구한 상징적 동물로 표현된다.(탈출 19,4 참조)

이 상징은 하느님의 부성적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으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셨다.(마태 24,28 참조)

독수리는 강함과 신속함의 이미지(2사무 1,23 참조)로 나타나며, 악조건을 극복하는 높은 안목과 넓은 시야를 지닌 용맹스러운 새다.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날듯이 우리 신앙의 날개도 높이 솟구쳐야 하겠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직급/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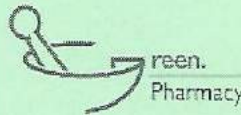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r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